

석유황제 햄머의 시말기

玄 源 福

(과학 저널리스트)

지난 33년간 미국 옥시덴털 석유회사의 회장직을 누리면서 세계 석유업계는 물론 정가와 실업계 그리고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숭한 화제를 뿌려 오던 「석유의 황제」 아만드 햄머는 지난 연말 92세로 이 세상을 하직했다. 그가 별세한 뒤 불과 한달도 안되어 옥시덴털사의 신회장인 레바논출신의 레이 이라니는 90억달러의 이 회사의 총자산중 IBP의 육가공공장, 호텔사업, 종마 및 영화사업등 30억달러를 팔아 빚을 갚은 뒤 본업인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화학공업에만 다시 전념하겠다고 발표하여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것은 다재다능하던 햄머가 그동안 벌여 놓았던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빚더미에서 헤어나는 한편 옥시덴털사에서 햄머의 체취를 제거하기 위한 결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다면 햄머는 무덤속에서 벌떡 일어 날지도 모른다고 빚대는 사람도 있다.

레닌의 자본주의 친구였고, 루즈벨트에서 투루먼, 닉슨, 카터, 레이건에 이르는 역대 미국대통령과 각별한 친분을 가졌던 햄머가 거의 무일푼에서 오늘날 연간매출 2백억달러의 미국 16째 대기업 회장으로 장수를 누리게 된 뒷이야기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흥미진진한 화제가 되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 「햄머」는 1987년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로 올라 섰고 1989년에 출간된 스티브와 인버그의 「아만드 햄머 : 밝혀지지 않는 이야기」도 독서계에 큰 바람을 몰고 왔다.

백만장자가 된 21세의 의학도

소련태생의 의사의 아들로 태어난 햄머는 돈벌이와 일찍부터 인연을 맺었다. 그는 뉴욕소재 컬럼비아대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아버지 주류스 햄머의 기울어져 가는 제약회사를 인수한 뒤 당시 금주법이 잠시 완화된 허점을 타서 생강술을 만들어 약관 21세에 첫번째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를 진짜 부자로 만든 사람은 레닌이었다.

1921년 의사가 된 23세의 햄머는 주미소련대사관의 의사로 근무하던 부친의 주선으로 소련으로 가서 레닌과 만나게 된다. 그의 당초목표는 소련에서 당시 창궐하던 티부스와 기근의 희생자를 돕자는 것이었으나 레닌은 그에게 뒤통거리는 소련의 경제를 도와 줄 것을 바랐다.

그는 미국에서 양곡을 사들이고 그 댓가로 모피와 광물을 받았다. 그는 아스베스토광산을 경영하기도 하고 소련에서 가장 큰 연필공장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미국 기업들의 활동을 돕기도 했다. 당초 몇달로 작정했던 소련체류가 결국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고 스탈린이 등장하여 외국상인들을 탄압하게 되자 1930년 미국으로 돌아 왔다. 그러나 그의 소련의 장기체류는 헛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레닌덕에 산더미같이 많은 제정러시아의 미술품을 타다남은 물건값에 사들여 본국에 보냈던 것이다. 이리하여 1930년대에는 이를테면 백화점 대봉사 세일의 판촉원처럼 이 미술품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다. 이때부터 미술은 그의 인생이 되었다. 그는 많은 개인 소장품을 갖고 뉴욕에 2개의 화랑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좋아 한 것은 그림의 선이나 색채가 아니라 이른바 진품으로 드러난 「가짜」를 사들이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미술이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파워 게임처럼 보였다. 뉴욕의 그의 화방에 전시할 작품을 보내달라는 청을 받은 영국 찰즈황태자가 자기 수채화는 너무 아마추어 냄새가 난다고 머뭇거리자 화가 한 사람을 곧바로 영국으로 보내 레슨을 받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석유와의 인연

그림으로 한뼘천 잡은 햄머는 통만들기와 위스키양조업등 이런 저런 사업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검은 노다지」를 잡게 된다. 56세이던 1955년 은퇴를 생각하면서 캘리포니아주로 옮긴 그는 다시 자산가치가 3만4천달러 밖에 나가지 않던 쓰러져 가는 옥시덴털 석유회사의 2개의 탐사중인 유전에 10만달러를 투자했다. 석유가 터져나오자 재빨리 이 회사의 주를 사서 1957년에는 사장이 되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에서 두번째로 큰 가스田을 발견했고, 리비아와 북해 그리고 콜롬비아에서 연거푸 대유전을 히트했다. 그는 특히 외국유전교섭에 뛰어난 솜씨를 보여 카다피가 득세하기 전 리비아와 사업관계를 굳힐 때부터 옥시덴털회사는 일약 대석유회사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업이 커지면서 한편으로는 엑슨, 모빌, 텍사스, 스탠다드 오일 오브 캘리포니아, 걸프, 브리티쉬석유(BP), 로열 더치 쉘등 이른바 「세븐시스터즈(석유 메이

저 7사」에게 매수될 위험이 커져 갔다.

햄머는 「옥시덴털이 메이저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이 삼킬 수 없을 정도로 기업의 덩치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1981년에는 미국최대의 쇠고기 포장회사인 아이오와 비프 패커즈사(IBM)를 7억5천만 달러로 사들였고, 이어 1982년에는 시티즈 서비스사를 40억달러에 매입했다. 1987년에는 22억달러를 지불하고 케인 케미칼사를 사들여 3번째로 큰 에틸렌메이커가 되었다. 그런데 이런 매입전략으로 기업은 비대해 졌으나 매입자금으로 차용한 빚도 눈덩어리처럼 불어나서 1988년에는 총자본의 반이 넘는 63억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정계와의 교유

햄머는 기업을 확장하는 한편 미국정계 정상급으로 뛰어드는 데도 이에 못지 않는 정열을 쏟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사교의 기회를 개척하면서 권력층의 관심을 끌기 위한 로비에 전념했다. 최근에는 그의 미술소장품을 전시용으로 빌려 주고 두둑한 자산기부금을 내놓았다. 1985년에는 찰즈황태자가 좋아하는 자선사업에 1천4백만달러를 기부하여 영국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다. 햄머는 그의 연수 1천만달러중 90%는 기부금으로 내놓았다고 주장했으나 그보다 더 많은 돈이 기업자금에서 나왔다. 로스엔젤레스의 회사본부 옆에 세운 햄머의 미술소장품용 미술관 건축비 3천만달러는 거의가 회사돈이었다.

햄머는 백악관과 줄을 대기 위해 정력적인 캠페인을 펴나갔다. 1940년 그는 마침내 루즈벨트대통령과 한 모임에서 만나게 되지만 루즈벨트는 그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러나 햄머는 대통령과 함께 영국을 돕기 위한 무기대여법제안을 토의하여 신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루만대통령과 유럽의 기근원조 문제를 토의했으며 트루만은 그를 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했다. 햄머는 또 1972년 미국대통령선거전에서 닉슨에게 5만4천달러의 불법정치기금을 했다고 1976년 유죄가 언도되었으나 마침 심장병을 앓고 있어 벌금과 집행유예로 복역을 면했다. 그는 카터를 대통령선거전에서 크게 지원한 덕에 백악관에 무상출입할 수 있었다. 1980년 선거에서도 카터를 지원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레이건의 백악관으로부터 냉랭한 대접을 받았으나 햄머는 자선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훼손된 위치를 되찾는데 성공했다. 이 중에는 낸시 레이건의 백악관 재단장기금을 위한 2만달러의 기부금도 포함되어 있다. 레이건대통령은 두번째 임기가 시작되면서 햄머에게 “미국의 대소정책에서 귀하의 통찰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서한을 보내는 한편 안보담당 보좌관에게 세계평화문제에 관하여 그의 의견을 참작할 것을 지시했다.

세계평화를 위해

이리하여 P.R에 민감한 햄머는 8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력적인 ‘셔틀 외교(왕복외교)’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레이건은 물론 고르바초프, 그로미코, 세바르드나제, 나지블라(아프가니스탄 대통령), 지아(파키스탄대통령), 전 아프가니스탄왕등을 만났다.

그는 또 군축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고르바초프를 여러 번 찾기도 했다. 고르바초프는 서방과의 통상과 기술을 끌어 들이고 평화조정자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쌓아 올리는데 매우 유용한 인물로 생각하고 햄머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그의 전용기인 ‘옥시 1호’는 소련영공 출입을 허가받은 유일한 개인비행기가 되었다.

한번은 파리로 가던 ‘옥시 1호’가 재급유차 캐나다 동해안의 뉴펀들랜드섬공항에 내렸다. 그러나 공항당국

은 기름이 없고 두주일 뒤에나 보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햄머는 공중전화박스로 가서 피엘 트루도 캐나다 수상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로부터 2시간 뒤 탱크 그득히 기름을 채운 ‘옥시 1호’는 대서양을 가로 지르고 있었다.

햄머가 연간 50만마일을 날으는 고된 왕복외교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옥시 1호’의 그의 전용특실에서 포근한 잠을 잘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호화로운 보잉 727을 개조한 이 전용기의 특실에는 전기담요를 씌운 더블베드와 가슴기가 갖추어져 있어 햄머는 언제나 단잠을 잘 수 있고 가쁜한 기분으로 목적지에 내릴 수 있었다. 물론 ‘옥시1호’는 옥시덴털회사의 비용으로 운영되었으나 회사일과는 무관한 왕복외교에 사용한다고 해서 누구 한사람도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다. 햄머는 한때 옥시덴털사의 주를 50%이상이나 소유했으나 거의 모두 처분하여 그가 별세하던 무렵에는 0.5%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말년에는 노벨평화상이 탐나서 저명한 미국인들을 앞세워 캠페인을 벌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당사자인 햄머는 평화상을 받으려고 애쓴 일은 없지만 “반게 된다면 매우 행복할 것이다”고 얼버무렸다. 미국 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이었던 브레진스키는 “노벨평화상을 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가 수상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높았다”고 말하고 있다.♣

□ 도서안내 □

The Petroleum Industry in Korea 1990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펴냄 -